

## 21세기의 학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조 호 남\*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 원년 2K년도를 일년 앞둔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99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의미 심장하고 의의가 큰 해라고 봅니다. 더구나 작년에 IMF 환란이 초래한 경제 위기로 인하여 온 국민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정부와 온 국민들이 이 환란으로 무너진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경제가 환란을 극복하고서 대망의 새 천년의 원년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 학회도 운영 면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작지만 직원들의 봉급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등 구조조정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본인이 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재정확충을 위하여 참여이사급 특별회원제를 도입하여 IMF 경제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8개사를 영입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도 몇개사는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도 있습니다. 더구나 학회 재정문제의 해결도 도모하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마련했던 S/W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S/W 개발을 자문하기 위한

기술개발 특별위원회와 지난 10년간 실무 구조기술자들의 고급 구조 해석 및 설계 교육을 위하여 크게 기여해온 단기강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교육 특별위원회, 그리고 엔지니어링업계의 구조기술자들에게 첨단 구조기술정보, S/W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정보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IMF로 인한 기업의 어려운 사정과 홍보의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은 무엇보다도 작년에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담당 이사들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주년을 맞이한 지난 한해동안 학회지·논문집 발간과 학술발표회 등의 학회 학술활동면에서는 이미 타학회의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도 지난해에는 전보다 진일보하여 논문집 심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발표 논문의 질을 더욱 높이고, 학회지의 편집 체제를 더욱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에 우리 학회의 서비스 기능을 널리 알리기

\* 성회원·한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본학회 회장

위하여 학회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아직 그 직접적인 효과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학회 소개 팜플렛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앞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학회 홍보의 일환으로 각 기업의 전산개발 및 연구책임자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회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금년에는 참여 이사급 특별 회원사에 이어 일반 특별 회원사를 30개 업체 이상 영입할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회 회장단과 이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 목표대로 학회 재정도 안정화시키고 산학협력도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지면, 21세기가 시작되는 2K년도에는 논문집과 학회지를 분리 발간하고, 학회지를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학회는 첨단 구조기술과 CAE/CAD 구조 시스템연구개발을 핵심으

로 하는 학회의 특성상, 앞으로 21세기 고도의 정보화/전산화, 지식 산업화 시대에 분명 어느 구조전문학회보다 그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수년 내에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구조설계 업무가 고도로 전산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우리 학회와의 산학협력을 업계가 원할 것이 분명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대한 우리 학회의 첨단 전산화 구조 해석·설계의 학술 및 기술 서비스도 고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앞으로 수년 내에 우리 학회의 위상이 보다 더 높아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학협력이 잘되는 학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인 올해 99년도에 학회 원로, 신규임 회장단과 임원, 대의원, 증견회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학회의 재정안정화, 산학협력강화, 학회 학술활동의 발전에 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